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

정혜숙

(서울시립대학교)

[요약]

본 질적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가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남편 대신"이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복지의존'은 그들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데 긴요한 도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자활이란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기보다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이며, 경제력 외에도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의 성급한 초점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어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장기적 차원의 자활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과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자활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비추어진 '종속과 낙인'의 이미지를 벗고 근로연계복지의 애초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동기와 과정에 대한 내부자관점을 반영하는 수행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질적연구, 자활, 복지의존, 여성 한부모, 근로연계복지, 자활사업

* 본 논문은 연구자가 작성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연구보고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제 8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초로 추가 자료수집, 문헌 검토, 결과 분석과정을 거쳐 새롭게 재구성된 것임.

1. 서론

빈곤 여성 한부모는 복지의존과 자활의 경계에서 가장 많은 분투를 하고 있는 취약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국외 사회복지문헌에서 등장하는 자활(self-sufficiency)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논자들은 그들의 자활이슈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먼저, 자활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접근이 특정의 합의 과정 없이 '위로부터의 관점(top-down approach)'에서 시작되어 대중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미국 빈곤정책의 법적 근간이 된 복지개혁 법안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ies Reconciliation Act(PRWORA)은 근로를 통한 개인의 자활적 삶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복지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 이 법안은 복지 수급권을 갖고 있는 빈곤층일지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한 반드시 근로활동과 연계되어 국가가 지정한 특정 기간¹⁾ 안에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도록 요청한다(Brush, 2000; Hawkins, 2005; Hong et al., 2009). 이는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복지의존을 최대한 경계하여 가능한 수급자들의 숫자를 감소시키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복지개혁 이후 빈곤층의 현실을 조사해온 연구들은 빈민들의 근로연계가 탈빈곤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복합적 원인들을 지적하면서 자활 접근은 반드시 자활당사자들의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Kneipp, 2000; Riger and Staggs, 2004; Hong et al., 2009). 예컨대, Ahn(2014)은 근로소득 증가와 탈수급을 복지개혁과 자활의 성과로 간주하는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근로연계를 통해 소득은 증가하였더라도 수급권 상실은 자녀돌봄 대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한부모여성들이 더 심각한 빈곤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복지개혁이후 한부모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을 질적으로 조명한 Cheng(2010) 역시 지속적 노동을 수행하는 그들에게 복지의존을 벗어난 자활을 성취하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 이상으로서 하향전달식의 규범적 억압일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위로부터의 관점'으로 출발된 자활 접근이 경제적 자립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자활 개념은 '소득을 얻는 근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지원의 복지수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의 경제적 지표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가치를 반영하는 자활 개념은 총체적 차원으로 개인들의 다양한 현실과 근로 조건을 포괄하는 보다 생태적 차원의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Kneipp, 2000; Garces, 2003). 특히 질적연구자들은 자활이 단편적이고 정제된 한 시점의 개인의 상태와 상황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다차원적 평가와 과정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Gowdy와 Pealmutter(1993)는 일찍이 수급자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독립의 주관적

1) 1996년 제정된 PRWORA는 최대 60개월(5년)까지만 복지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여 복지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의무화하고 탈수급을 통한 자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의미를 질적으로 탐색하면서, 자활 영역은 경제적 차원의 안정 및 책임 이외 개인의 심리사회적 성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미국 한인 가정폭력피해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조사한 정혜숙(2013)의 질적연구는 자활과 복지의존의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활당사자들에게 '자활'은 경제적·정신적 자립 능력을 모두 갖추어 나가는 삶의 지속적 과제이자 역동적 과정이었으며, '복지의존'은 가정폭력피해의 후유증으로 약해진 그들의 경제적·정신적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한부모 가구주로서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덜 수 있는 긴요한 통로였다.

국내 자활 연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연계형 자활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활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주요 변인이나 효과를 밝히는 양적조사들(김교성·강철희, 2003; 이상록·진재문, 2003; 이형하·조원탁, 2004; 김준현, 2009; 박정호, 2010; 박희정 외, 2010; 임진섭 외, 2010; 백학영·조성은, 2012; 이상은·전제나, 2012)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소수지만 국내 빈곤층 여성의 자활과 관련된 최근 질적연구들은(박영란·황정임, 2002; 황정임, 2005; 백학영·고미선, 2007)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 전후의 삶의 현실과 변화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백학영과 고미선(2007)은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내부자적 인식과 평가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한부모 여성의 주요 자원과 장애물에 대한 구체적 현실을 보여주었다. 한편 자활 접근에 깔려 있는 사회복지적 가치와 의미를 논하는 국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몇몇 연구자들이(이숙진, 2002; 신명호, 2006; 노대명, 2006; 김인숙, 2008) 정부 주도형 자활 사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국내 자활 당사자들의 현실을 근거로 현재 자활 접근이 새롭게 구성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관점을 근거로 여성 자활당사자와 정부 간 자활 관점의 차이를 언급한 김인숙(2008: 97)의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제도적 자활'과 '실천(현장)적 자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의 문제로 인해 자활의 '복잡성, 총체성, 그리고 현실성'이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자활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앞서 제기한 '아래로부터의 관점'에 근거한 자활 의미의 고찰 필요성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문제제기를 통해, 자활당사자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관점' 연구와 국내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이해하는 질적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빈곤 여성 한부모에 의해 재구성되는 자활의 맥락과 현실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대성과는 자활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자들이 빈곤 여성 한부모들의 고유한 현실에 근거하여 보다 민감하고 적합한 실행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자활 관련 논의와 관련 정책 개발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조응성 개선의 필요성을 자극하게 되길 기대한다.

2. 기존 문헌의 검토와 본 연구의 고유성

국내외 사회과학연구에서 자활 용어가 중심 주제로 등장한 것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근로연계형 복지(welfare to work)가 빈곤정책에 보편적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근로연

계형 복지정책의 공통 목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 취업대상자들의 자활을 돕는 것으로, 전략적으로는 그들을 노동의 의무를 지닌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시켜 노동시장에 적극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지 의존 수급자들의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황덕순, 2005; Cheng, 2010). 90년대 이후 출간된 주요 사회과학 저널에서 '자활'의 키워드와 함께 동반 검색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빈곤, 근로연계, 복지 의존, 자활사업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자활'은 그와 연관된 자립 혹은 자조 등의 본래 의미 보다는 신자유주의형 빈곤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된 특성의 의미 혹은 사업 명칭으로 재구성되어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자활 관련 선행연구들을 두 차원으로(자활 접근에 대한 재구성: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나누어 검토하였다.

1) 자활 접근에 대한 재구성

국내의 문헌에서 자활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재구성을 시도한 연구들의 논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빈곤 정책의 목표와 평가에서 주요 초점이 되고 있는 경제적 자활 접근은 자활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확대된 의미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활의 사전적 정의가 '제 힘으로 살아감' 혹은 '자립'의 뜻으로 볼 때, 한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의 원천은 생태 체계를 망라하는 다양하고 복합적 국면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활의 의미는 매우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는 자활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복지 원칙들로 좁게 협의된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Daugherty와 Barber(2001)는 미국에서의 자활의 상징은 개인의 독립, 책임, 의지를 강조하는 국가 이념과 도덕관에 근거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있으며, 근로연계형 자활 패러다임은 전근대적 복지이념에서 등장하는 '자격있는 빈민(deserving poor)과 자격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을 분류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Hawkins(2005)는 대중화된 자활 접근은 사회정책적 차원에 국한되어 복지 의존과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자활의 주요한 속성인 연속성(continuum)과 유지성(sustainability)²⁾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정적 요인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등을 포함하는 자활의 다차원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Hong 외(2009)는 자활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심리적 역량강화³⁾와 목표에 도달해가는 과정(process of moving toward goals)⁴⁾을 지적하면서 자활 당사자의 심리적 관점과 과정적 목표 지향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역시 자활사업참여자의 탈수급율이나 취업률을 확인하는 연구(권승, 2005; 이상은·전제나, 2012)도 있지만, 최근 국내 연구들(박정호, 2010; 엄태영·임진섭, 2014)을 살펴볼 때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차원의 자활 개념을 자활 측정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편적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보다 본질적

2) 한 개인과 가족의 자활은 삶의 과정적·주기적 특성을 동반하고 있는 의미이므로 특정 단기 시점의 취업·소득·수급 등의 경제적 지표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음.

3) 자신에 대한 가치 인식, 스스로 인정하는 능력, 미래에 대한 조망을 포함함.

4) 자신의 동기 부여, 기술과 자원들의 활용, 목표 지향성을 포함함.

으로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자활의 제도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예로, 노대명(2006)은 한국 자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복합적 현실들로 구성되는 자활의 의미를 제도적 자활의 관점으로만 파악하여 복지수급자들의 자활의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는 모순을 경계하였다. 또한 김인숙(2008)은 기존 자활 패러다임에 배제되어 있는 '상호의존, 과정, 자주'의 의미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독립, 결과, 경제'의 의미들과의 결합을 통해 자활 개념이 재구성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둘째, 현재 자활 접근은 관련 전문가 및 실천가 그리고 자활 당사자들과의 협의나 동의 과정 없이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출발하였으므로,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구성된 자활의 의미에는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며 자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자활당사자가 당면한 현실과 고충을 반영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통해 자활 의미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들이 근로연계정책이후 빈곤층 근로자들의 탈수급 건수와 소득 증가의 근거를 들어 자활 접근이 국가와 빈곤층 모두의 상생적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빈곤층의 탈수급이 곧 탈빈곤과 자활로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Cheng, 2010; Ahn, 2014) 또한 만만치 않다. 예로, Rickman 외(2001)와 Cooke(2009)는 탈수급자들이 겪게 되는 빈곤화와 더불어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양상을 지적하면서 특정 취약계층의 개인들(어린 자녀 양육, 낮은 교육 수준과 취업 경력)은 노동 시장에서 저임금 직업군에 속할 확률이 높은 빈곤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정책적 차원의 우선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한 자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표방하는 연구들은(한상진·김용식, 2007; 김인숙, 2008; Cooney, 2006; Hong et al., 2009; Cheng, 2010) 주로 내부자관점에 근거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예컨대, Hong 외(2009)는 자활당사자들에게 자활은 재정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적 힘을 세우면서 현실적인 재정 계획과 미래에 대한 구상으로 기술과 자원들을 획득하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위 첫째 논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활 의미를 '결과'보다는 '과정, 다차원성, 상호작용, 자주' 등의 개념으로 재구성한 국내 질적연구들(한상진·김용식, 2007; 김인숙, 2008) 역시 자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관점'이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배태된 '획일성, 파편성, 배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Scott 외(2007)는 미국 복지개혁과 자활 패러다임이 우선적으로 한부모 여성 수급자들의 자활을 촉구하여 복지의존을 줄이는 목표에 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빈곤 여성의 자활 이슈를 다룬 주요 연구들(Kneipp, 2000; Grube-Farrell, 2002; Gabe, 2003; Cooney, 2006; Cheng, 2010; Rusyda et al., 2011)은 현재 자활 접근이 빈곤 여성들의 실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당위적 목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복지개혁 이후 미국 한부모의 빈곤을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건부 수급 형태로 주어지는 TANF⁵⁾가 탈수급과 자활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

5)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약명. 복지개혁이후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는 TANF는 AFDC를 대체한 조건부 현금지원 프로그램으로 수급자의 근로 의무화와 동시에 수급기간을 생애 최대 5년으로 국한함으로써 탈수급과 노동을 통한 자활에 도달하도록 유도함.

펴보고 있다. 최근 자활 문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Ahn(2014)은 여성 한부모의 고유한 현실을 경제적 자활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TANF가 탈수급과 자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때 고용과 소득 변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여성 한부모에게 중요한 변수는 노동시장 진입시 발생하는 자녀돌봄비용이다. 즉 근로를 통한 총 소득은 증가하더라도 자녀비용 증가와 수급권 상실까지 감안하면 근로 소득으로 탈빈곤과 자활을 성취하긴 역부족이기 때문에 많은 한부모들이 탈수급후 수급 빈곤층(welfare poor)에서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으로 전이되고 있다. 둘째, 빈곤 여성 한부모는 대체로 학력과 직업능력 개발 수준이 높지 않고 자녀돌봄 부담까지 끌어안고 있어 저소득 근로를 탈피할 수 있는 취업진로 변경 유연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활을 장기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제로 그들에게 공적 보육서비스를 우선순위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직업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한편 빈곤여성의 자활을 질적으로 탐색한 연구결과들(Cooney, 2006; Grabowski, 2006; Scott et al., 2007; Cheng, 2010; Bowie and Dopwell, 2013)의 시사점들을 간략하게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들에게 자활의 의미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의도나 요청에 의해 강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일을 통한 자활은 매우 중요하지만 보상 수준이 낮은 근로와 불안정한 자녀돌봄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한 자활의 성취는 비현실적인 목표이다. 셋째, 설사 탈수급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가족과 친구 혹은 정부로부터의 특정적 지원을 보충하여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때 탈수급이 곧 의존 없는 자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그들의 학력과 기술 부족이 노동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어 안정적·장기적 자활을 방해한다.

국내 연구들 역시 '빈곤의 여성화'라는 보편적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주목하는 집단 중 하나가 여성 한부모이다. 실제 국내 자활 사업에 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 전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며 이 중 50% 이상이 한부모여성이다(보건복지부, 2000). 여성 한부모 빈곤의 열악한 수준과 양상을 설명하는 양적 연구들(김안나, 2006; 박재규, 2009; 장은진·석재은,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과 빈곤화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복합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여성 한부모의 생애와 대처 과정을 조명하는 질적연구들(정미숙, 2007; 이희연, 2011; 이현주, 2013)들은 조금씩 축적되고 있지만,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내부자관점으로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다만 최근 한부모 복지수급과 관련된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한 몇몇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오혜인(2013)은 '수급잔존'을 '탈수급' 혹은 '자활성공'의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여 성별 비교를 통한 한부모의 수급잔존 요인과 과정을 질적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수급잔존을 벗어나는데 필요한 한부모의 공통적 욕구는 시기별로, 적절한 자녀돌봄, 주거 서비스, 노후 일자리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로는 여성한부모가 고강도 직업훈련과 의료건강지원을, 남성 한부모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상담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시설을 퇴소한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배제⁶⁾ 완화 과정을 질적 조사한 강선경과 김미숙(2013: 104)은 여성한부모들이 "복지수급 경험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인

6) 사회적 배제는 빈곤 개념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소득 빈곤 뿐만 아니라 비소득 빈곤(심리적·사회적 차원 포함)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보았다.

식 개선을 이루어 (비록 물질의 부요함은 없지만) 마음이 부요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포섭되는 과정"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Hong 외(2009)의 조사결과와 매우 유사한 맥락으로, 복지수급이 한부모에게 낙인 경험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책임감, 자활 의지 등을 자극하여 미래 지향적 삶을 재편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본 연구의 고유성과 질적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은 역사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사회복지적 옹호(advocacy)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조사전략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내외 관련 연구들이 빈곤층의 경제적·정서적·사회적 자활에 대한 통합적 측정 지표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측정 지표에 의존하는 조사들은 빈곤 상황의 다차원적 복잡성과 시간적 연속성을 고려한 탐색이 어렵고 한 개인의 자활을 둘러싼 복잡한 조건과 맥락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불가능하다. 앞서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구성된 자활 접근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불리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빈곤층 한부모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빈곤 여성 한부모에 의해 재구성된 자활의 맥락과 현실은 어떠한가?'이다. 이에 연구자는 빈곤층 당사자들의 주관적 현실을 이해하고 '아래로부터의 관점'에 의해 재구성되는 자활 경험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빈곤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자활사업장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져 참여자 경험이 자활사업으로 국한되어 있던 한계가 존재하였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빈곤가구와 여성한부모의 조합으로만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가 그들에게 요청하는 '일을 통한 자활, 복지의존의 극복'에 관한 당사자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자활을 지탱하는 실제 동력은 어떠한지에 관한 내부자관점을 조명하게 될 것이다. 질적연구의 주요 자료수집방법으로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의 실제 현실 세계를 민감하게 포착하는데 적합한 심층면접 전략이 활용되었다. 심층면접은 조사 참여자가 경험했던 빈곤 상황과 자활의 욕구에 대한 주관적 인식들을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에 관한 내부자 관점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이 연구에 쓰인 분석 자료는 2013년 <한국 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3차)⁷⁾>에서 추출된 전국 표본 120 빈곤가구 중 여성 한부모 가구주로서 조사 참여에 동의한 7명과 2014년 본 연구자가 개인적 차원

에서 추가 선정된 1명의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이다. 참여자 8명 모두 기초보장수급 혹은 조건부 수급 중인 자활 대상자로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조사 참여자의 가정 방문과 대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찰과 맥락적 정보를 인지하기 위해 모든 면접을 직접 수행하였고, 각 면접은 약 2시간 가량 참여자 주거지에서 진행되었다. 조사 참여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서울 거주 한 참여자가 면접 도중 자신이 앓고 있는 지병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과 통증을 호소하여, 이 사례만 예외적으로 약 1시간 정도의 면접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서울 거주 참여자를 추가적으로 찾아 줄 것을 조사 주체 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참여자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어, 연구자의 인적 지지망을 활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를 물색하여 1명을 추가 면접하였다. 이후 면접 자료의 포화가 감지되어 더 이상의 추가 면접은 없었다.

2) 연구의 윤리적 이슈와 엄격성을 위한 노력

조사과정에서의 윤리적 노력으로, 먼저 연구참여자의 자발성, 비밀 보장, 참여 보상 등을 보장하기 위해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패널 구축 주관 기관에 의해 일괄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각 참여자에게 연락하여 조사참여 동의에 대한 상황을 재차 확인한 후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희망하는 주말시간으로 면접일정이 잡혔다. 면접과정에서 몇몇 참여자들이 연구 주관 기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구하였고 연구자는 그 정보들을 삭제 처리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미리 구축된 패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자들의 수급 역사, 가족 상황, 직업 배경등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기초로 면접이 심층적으로 초점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그러한 선이해가 참여자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구자는 면접 상황에서 최대한 개방적이고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면접자료의 사실성을 보충하기 위해 연구자의 면접일지에 포함된 관찰정보(참여자의 주거 환경, 자녀와 대화하는 모습, 비언어적 표현 등)를 함께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투명성 검토를 위해 (참여자와 다시 연락하는 부분은 패널조사의 윤리적 제약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선행 면접들을 통해 확인된 주요 메시지에 대한 이해의 보완은 마지막 참여자(참여자 8번)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루어졌다. 덧붙여 연구결과에 대한 자활 관련 전문가와의 교차 검토를 위해 서울지역 자활사업 운영경험(9년간)을 가진 1명의 사회복지사와 자문 면접을 수행하였다.

7)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2011년 시작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평균소득 60%이하 해당 가구를 저소득층 개념으로 설정, 1차에서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 100가구 추출하였음. 2012년 2차에서 한부모, 자활사업참여자 등을 포함한 빈곤층 20가구 추가, 2013년 3차 조사는 추가 가구가 발생하지 않아 120가구를 유지·조사하였음.

3) 참여자 정보와 심층면접 과정에 대한 개요

본 연구에 참여한 8명의 한부모 여성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자활 현실과 관련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정보는 심층면담 시점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참여자 모두는 학령기 자녀들을(1명-3명) 양육하고 있으며, 8명 중 5명은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임금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는 장애 여성 한부모 1인(참여자 1번)이다.

<표 1> 빈곤 여성 한부모 참여자 정보

참여자 번호	자녀수 (연령)	주요 특성
1.	3명 (24,17,12)	- 자활사업 참여경험 없음. 장애로 인해 제한이 있었음. - 현재 임금 노동은 하지 있으나,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이혼. 기초보장 수급 중임. 첫째 아들은 장애가 있음.
2.	1명 (15)	- 자활사업 참여경험 없음. - 컴퓨터 관련 업계에서 5-6년째 종사하고 있음. - 이혼. 조건부 수급 중임.
3.	1명 (12)	- 자활사업 참여경험 있음. 어르신 재가방문, 복지관 내 설거지, 청소, 지적 장애인 프로그램 보조 등. - 미용기술 있으나 취업 안됨. 사회복지 공부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음. - 이혼. 조건부 수급 중임.
4.	3명 (19,16,13)	- 자활사업 참여경험 없음. - 교육관련직종에 종사 중 퇴사예정임. 퇴사 후 주간에는 아르바이트와 야간 대학교를 다니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할 계획임. - 이혼. 차상 위.
5.	2명 (17,15)	- 자활사업 참여경험 있음. 죽 사업단, 각자의 명의로 대출 받아 가게를 오픈했으나 자활사업 담당자의 간섭과 자율성 부족으로 그만두게 됨. - 동사무소 청소, 퇴근 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다님. - 이혼. 조건부 수급중임. 첫째 아들 장애 있음.
6.	3명 (20,17,14)	- 자활사업 참여경험 있음. 여가사업단에서 공부도우미, 노인정에서 동요나 동화구연을 함. -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후 현재까지 근무. - 이혼. 기초보장 수급 중임. 셋째 자녀 장애 있음.
7.	1명 (13)	- 자활사업 참여경험 있음. 간병, 천연비누 만드는 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음. - 자활근로와 함께 간병이나 식당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고령으로 취직 어려웠음. - 사별. 조건부 수급 중임.
8.	2명 (20, 15)	- 자활사업 참여 경험 있음. 빨래방, 가사도우미, 청소도우미. - 요양사 준비 중. - 이혼. 조건부 수급 중임.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수행된 면접은 자활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복지수급자들을 면접한 Hong 외

(2009)와 Scott 외(2007)의 자료수집 전략⁸⁾을 참조하여 만든 반구조화된 몇 개의 질문들로 시작되었으나 참여자의 응답과 연관된 질문들이 부가적으로 이어지는 개방적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그 결과, '자활에 대한 이미지 혹은 뜻', '한부모, 일, 복지의존, 자활에 대한 총체적 경험', '자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등이 탐색되었다. 면접 첫 단계로서, 연구자는 '자활'이 참여자에게 어떤 이미지 혹은 메시지로 다가오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확인하였다. 이 단계에서 자활사업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자활'을 '자활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후 질문에 포함된 '자활' 용어는 그 본래 뜻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임을 참여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이는 '자활' 용어에 대한 참여자 관점을 먼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접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 소통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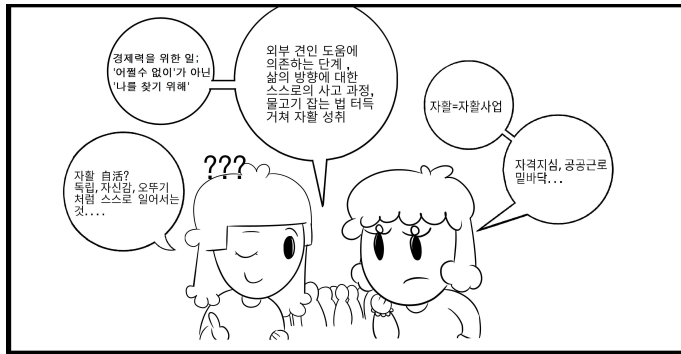
4) 결과 분석 과정에 대한 개요

자료분석은 질적연구에서 보편적 전략으로 제안되어진(Miles and Huberman, 1994) '원자료(면접녹취) 검토, 코드화, 범주화, 조직화, 의미 구성과 주제 도출'의 반복적이고 통합적인 순환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수행한 주요 분석 절차와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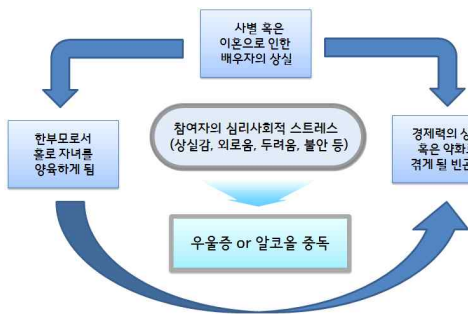
원자료의 코드화 이후 첫 범주화 단계에서 본 조사 연구문제와 관련성이 낮은 코드들은(결혼생활, 자녀 남편과의 갈등 등) 제외되었고, 원자료 앞 부분에 출현한 코드들의 주제인 '자활 용어에 대한 참여자 관점'은 별도로 분류되었다. 그 외 코드들은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범주화되었다. 그 범주들의 주제(코드)들은 첫째, 그들이 한부모가 된 배경과 이후 마주한 현실(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배우자 상실, 빈곤화, 자녀양육,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위기 등), 둘째, 그들이 힘든 현실 속에서 자활을 위해 선택한 것과 관련 경험(취업, 복지 의존, 자활사업 참여,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등), 셋째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자활의 동력(자녀, 복지, 자존감, 일, 신앙, 부모 등)이다. 다음은 연구자가 원자료로 돌아가 각 참여자의 이야기를 재검토하여 앞서 도출된 주제들의 맥락적 의미를 살펴 참여자들의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위의 첫째 주제는 참여자 자활의 기초선 상황으로 이해되어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의 심리사회적 맥락'으로 포함되었다. 위의 셋째 주제는 먼저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꼽은 '네 차원의 자활동력'(자녀, 복지, 자존감, 일)으로 추려지고 각 차원에 대한 참여자 관점이 도출되었다. 이 네 차원들은 참여자들이 대면했던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과 자활에 대한 의지를 끌어올리는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둘째 주제의 참여자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네 차원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참여자의 특정 시간 및 상황에 따라 자활에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으로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의 역학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자활동력의 역학'이라는 주제 아래 위 네 차원의 상호작용과 그 긍정적·부정

8) Hong 외(2009)가 활용한 면접 질문은 '당신에게 자활은 어떤 의미인가?', '자활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자활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Scott 외(2007)는 개방형질문으로 자활당사자들의 생애 경험을 전반적으로 탐색하면서 자활과 의존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고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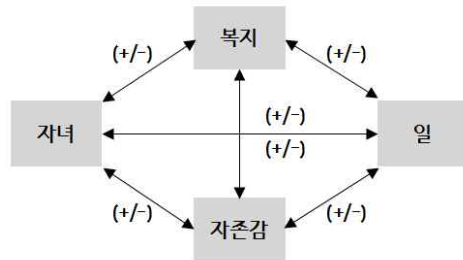
적 작용이 통합적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그림(1~3)은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들이 조직화(organizing)되고 도식화(mapping)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림 1> 자활 용어에 대한 참여자 관점



<그림 2>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의 심리사회적 맥락



<그림 3>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동력의 역학:((+)보호요인 /(-):위험요인)

4. 분석 결과

연구결과의 시작은 자활 용어에 대해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떠올리고 인식하는 이미지와 의미에 대한 것으로, 면접 키워드인 자활에 대한 참여자 관점을 소개하는 마중물로 제시되었다. 다음은 대주체인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의 맥락과 현실'에 대한 결과로서 위 <그림 2>와 <그림 3>에 해당되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분석된 결과는 도출된 주제와 연동된 참여자진술들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하고 관련된 연구자의 해석을 포함하며, 각 주제와 진술들의 연관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 필요시 진술들 중간에 중략(...) 표시를 하였다. 결과 해석에서 참여자 진술로부터 따온 표현은 큰 따옴표(“”)로 표시하였다.

1) 마중물: '자활' 용어에 대한 참여자 관점(위 <그림 1> 참조)

먼저 참여자들은 용어 '자활'에 대한 느낌 혹은 이미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3명은 '자활' 용어 자체의 개념적 이미지("독립", "자신감", "스스로 일어서는 것")를 떠올렸고,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한부모 여성들은 자활사업 경험과 연관된 주관적 메시지를 연상하였다. 참여자들의 반응(질문 후 응답 전까지의 시간 길이, 표정 등)에 근거할 때, 전자의 참여자들에게 '자활'은 다소 낯선 용어임을 알 수 있었고, 후자의 참여자들은 '자활'과 '자활사업'을 동일시하여서인지 용어 자체에는 익숙한 듯 보였다. 그러나 후자는 '자활'의 본래 뜻보다는 자활사업의 조대상과 현실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자격지심", "영세민", "공공근로", "밀바닥")를 보고하였다.

능력?...독립적인 것. 자신감..(참여자 2)

오뚜기처럼 스스로 일어서는 것?(참여자 4)

자활이라고 하면 조금씩 자격지심이 들어요...자활이라 안하고 영세민이라고 해요.(참여자 5)

자활...공공근로...가장 밀바닥 같아요...그 의미를 알면 싫어할 일은 없는데 그 자활이라는 이미지 가 사람들에게 좋게 되어 있지 않아요.(참여자 3)

자활사업장 경험을 가진 참여자 진술에는 사업 실태와 성과에 관한 '내부자관점'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왜 그들이 '자활'의 이미지를 원래 의미와 상반되는 '낙인'과 '중속' 등의 부정적 느낌으로 떠올렸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활당사자들의 욕구와 만족이 반영된 참여와 선택의 기회들이 제공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규정에 맞추어진 사업들에 중속되어 따라가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예컨대, 참여자 3은 여성의 근로영역이 주로 단순 육체노동(주방, 청소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자체가 그들의 잠재된 우울감과 위축감을 자극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회복지사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욕구조사나 만족도 조사 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물을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건지...자활이라는 근무자체가 주방일, 아님 청소...선뜻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시키세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분들에게...(참여자 3)

위에서 알아서 다 짜서 예산으로 내려오면 그 설계로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참여자 7)

아직은 참여를 통해 자기 개발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활사업단들이 만들어지는 현실은 아니라고 봐요...또 사업단에 모이는 분들끼리 수시로 싸우고 하니까 그런 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참여자도 많아요.(사회복지사 전문가)

더불어 참여자들은 '의존'이 '자활'의 배타적 속성이라고 보진 않았다. 예로, 참여자 3은 예기치 못한 위기로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도움이 손을 내밀어 주는 존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일어난다"의 뜻을 가진 자활 역시 과정 속에서 외부의 도움("누군가의 견인")에 의존하는 단계를 거쳐

성장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참여자 2, 6번 진술에서처럼, '의존'이 '자활'을 이끌기 위해서는 당사자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사고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고 발전적 차원의 자립 방법으로 서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스스로 일어난다는 말(자활)자체가 사실은,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걷기 까지 스스로 걸어가는 것을 터득해야 하잖아요...그러니까 반드시 그 누군가의 견인이 필요하다...스스로의 개념은 그런 것이지 않나 싶어요, 걸음마를 시켜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참여자 3)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그래야지만 앞으로 나가지 하루하루 주는 대로 먹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참여자 2)

노숙자들도 하루 하루는 살아요...어떻게 고기를 잡을 것인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고기를 잡아서 주면 편하고 배부르니까 나중에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줄 것은 아니잖아요.(참여자 6)

참여자들은 자활을 위해 경제력과 일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자녀양육과 생계를 위한 의무감이나 상황에 밀려 일하는 것은 '자활'의 원 뜻 "스스로 활동하는 것"과 잘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예컨대, 아래 참여자 4는 지금까지 "생계형" 일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일은 진정한 의미의 자활 성취는 아니기에, 현재 실제 자신이 하고 싶은 '청소년 상담' 일을 선택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진술은 '자활'이란 먹고 살기위해서 혹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전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기쁘지는 않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애를 키워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의무감.(참여자 7)

이건 제 스스로가 아니라 어머니가 하는 거죠...자활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풀이하자면 어떻게 보면 스스로 활동하는 건데 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계형, 그(자활) 의미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나를 찾기 위해서 자활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4)

2)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의 맥락과 현실

(1)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의 심리사회적 맥락(<그림 2> 참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했던 현실은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상실, 한부모로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됨, 가족 경제력의 상실(혹은 약화)로 겪게 된 빈곤화'이다. 이 복합적 어려움들을 대면하게 된 참여자들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분노, 우울, 외로움, 두려움, 무기력 등)를 겪으며 몹시 힘들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들은 정신적·경제적 궁핍 상황에서 자녀 돌봄과 가정경제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역할이 매우 당황스럽고 버거웠다. 그들은 결국 자녀에게 엄마로서 보이지 말아야 하는 행동("아빠한테 가라, 죽어버리겠다", "아이가 물어봐도 포기해버리고")을 보이기도 했다고 보

고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회한의 감정들을 함께 표출하였다. 그들은 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에 빠지는 위기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다.

엄마가 이런 소리하면 안 되는데 ‘아빠한테 가라고’ 했어요...그 사람이 우리 애들을 버렸어도 우리 애들이 크게 잘 되는 걸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힘들었죠. 그때마다 막말 많이 했어요...심할 때는 ‘죽어버리겠다’는 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참여자 4)

능력이 못되어 학원도 못 보내고...아이가 물어봐도 포기해버리고 그럴 때는 좀 답답하고 미안하지...돈이 없어서 밤늦게 아르바이트로 식당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참여자 5)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우울증이 와서...죽고 싶은 생각...애들도 보는데 술 먹고 너무러져...추했지요. (참여자 8)

제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그러면서 제가 너무 싫고, 우울증도...제 자신이 너무 멍청하다는 느낌, 그래서 싫었죠.(참여자 2)

(2) 자활 동력의 네 차원: 자녀, 복지, 일, 자존감

참여자들이 위에서 살펴본 힘들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참여자 진술들을 통해 네 차원-복지, 일, 자녀, 자존감-의 동력이 그들의 자활을 동기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네 차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자녀: “아이들이 많은 힘이 되어 주었죠”

참여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진 자신들을 세상 밖으로 나가게 용기를 준 것은 자녀의 존재였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엄마라는 책임감이 자신을 “추스르고 일어난” 이유가 되기도 하고 자녀의 지지와 격려로 삶의 기쁨을 되찾기도 한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아이를 누굴 줄 순 없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추스르고 일어난 것이지.(참여자 7)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아이들이 많은 힘이 되어 주었죠. 내가 힘을 얻고 즐거운 만큼 아이들에게 즐겁게 행동을 하고 스킨십이나 대화로써 많이 풀다보니까 별 것 아닌 것에도 잘 웃어요. 아이들 이랑.(참여자 6)

② 복지: “제 손을 잡아 일으켜준 국가, 남편 대신이었던 복지서비스”

참여자들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해주는 복지 수급과 서비스’를 그들이 절망과 힘겨움으로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도움의 역할로 평가하였다. 한부모 가장으로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일이 너무 버거웠을 때, 수급권과 복지서비스(의료혜택, 자녀교육지원 등)는 반갑고 긴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아래 참여자 8은 자녀에게 필요한 복지자원들이 “내 남편 대신”의 역할을 해주었기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이 나라 복지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켜준 것이죠. 너무 고맙죠...또 제 집처럼 다니는 이 복지관분들이 우리 애들을 얼마나 예쁘게 키워주셨는지. 그분들이 '내 남편 대신'이었어요.(참여자 8)

③ 일: “배포라는 것이 생기죠..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들은 가난한 한부모로서 느끼게 된 정서와 감정들(두려움, 겁, 망설임)에 스스로 맞서 나가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일’을 꼽았다. 아래 참여자 6은 경제활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 “덜컥 겁부터 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꺼려졌지만 용기를 내어 직업을 찾고 적응해나가면서 점차 “배포,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일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기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활사업 근로를 했던 참여자 3은 사회복지사 자격 준비 과정에서 지적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였을 때, 삶에 대한 긴장을 풀고 자신의 내적 치유와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여지잖아요...직장을 다녀보고 이리다 보니가 배포라는 것이 생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벌 수 있다는 자신감?...‘뭘든 해서 못 벌겠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참여자 6)

그 아이들(지적장애아동)이 저한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한테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제가 많이, 삶에 힘을 좀 많이 빼게 됐죠...내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참여자 3)

④ 자존감 : “자존감 없으면 돈의 굴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참여자들은 한부모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일과 경제력을 매우 중요한 자활의 조건으로 꼽았다. 그러나 자신감을 갖춘 삶의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함을 언급한 그들의 진술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한부모가 된 이후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로 시달렸던 복합적 현실에서 ‘돈의 가치’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대처전략이라고 보았으며, 자존감(자신감)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돈의 굴레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전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싶어요...저도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집에서 살림만 하던 내가. 그렇게 생각 했는데 나오게 되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그래도 이혼했다고 하면 세상이 안 좋게 보기는 해요. 쉬쉬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 무시하고 당당하게...우울증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참여자 4)

자활에는 돈과 자존감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어쨌면 자존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존감 없으면 돈의 굴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참여자 8)

(3) 자활 동력(자녀, 복지, 일, 자존감)의 역학

앞서 자활 동력의 네 차원이 각각 참여자들의 자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3>과 같이 이 네 차원은 실제 현실에서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자활 동력의 역학을 보여준다. 먼저 이 상호작용이 참여자의 자활에 도움이 되는 역학(보호요인)으로 작용할 때의 예시를 살펴본다.

① '엄마이기에 복지의존도 일도 당당하게'

참여자들에게 자녀의 존재는 '일'과 '복지의존'의 동기도 되었으며,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급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지의존'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바뀌었으며 그 변화는 '엄마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탈수급'의지를 갖고 있지만 '복지의존'을 자녀를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인정하면서, 한부모로서 '엄마'의 몫을 다하는 그들 자신에게 '부끄러운'보다는 '당당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어 한다. 예로, 참여자 7은 복지의존을 거쳐 자녀를 잘 키워내고 자활을 성취하게 된다면 국가에 진 빚을 되갚을 수 있다는 신념을 표명하면서 그들 역시 삶에 대한 통제 감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 8은 오랫동안 자활사업단에 속한 여성과 남성들을 지켜보면서, "엄마로서의 에너지"를 지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버터내는" 힘과 "당당함"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게 엄마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구청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 스스로 위축되고 그랬는데, ...내가 탈수급하고 싶다는 생각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대하고 있어요...그래서 당당하게 지내기로 마음먹었죠. 나중에 아이가 커서 국가에 갚아도 되고, 내가 부자 되고 잘 풀려서 국가에 갚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막 그렇게 위축되고 부끄러운 것은 없어요.(참여자 7)

십년이상 지내며 열혈도 쉰 적이 없어요. 엄마라는 에너지가 있어서인지 견디게 되더라고요. 같은 처지 동료들을 지켜보면 웬만한 엄마들은 다 견디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못 버티더라고요...국가에 의존하고 있지만 부끄럽지는 않지요. 당당하다고 할까요?(참여자 8)

② '복지의존을 통해 자녀를 지키고, 근로연계로 두려움과 무기력 떨쳐'

참여자들은 한부모 역할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복지의존을 통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보충함으로써 자녀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보고한다. 예로, 참여자 8은 한부모가 된 후 복지 자원 없이 버텨야 한다면, 많은 한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참여자 4 역시 국가의 현금 지원과 근로연계로의 자극은 한부모 여성들이 두려움과 무기력을 떨쳐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근로시간이 길 경우 아이만 홀로 집에 남겨두어야 하는 불안감이 커서 힘들었는데, 시간제 근무시간을 허용하는 자활사업이 국가가 제공해주는 대안적 근로 기회라는 점에서 유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게(복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많은 아이들이 버려질 수 있어요. 엄마들이 혼자 버티는 게 힘든데 복지같은 게 없으면 아이를 놓지 않을까요? (참여자 8)

돈을 일부 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것 좋은 것 같아요...집에만 있으면 자꾸 무기력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혼자 되었을 때, 직장 생활로 받을 내딤은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그 한 받을 내딤은 걸 도와주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참여자 4)

다른 일 할 때 돈은 많이 받았지만 마음이 더 피곤했어요...5살짜리를 오후 8시가 다 되어서 봐야 하고 새벽 5시30분에 나가야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문 다 잠그고 혼자 있으라 하고...너무 마음이 아파서...이거(자활사업) 아니었으면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싶어요...월급은 적지만 고정적으

로 나오고 아이랑 같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지낼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참여자 7)

③ '일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질 높이고 자신감과 자부심 키우기'

참여자들은 일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주고 자녀들에게 '당당한 엄마'로 비추어지면서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상호 존중 및 격려'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장애인 복지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현재 자원봉사와 자격증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참여자 1과 피부미용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참여자 6은 '싱글맘'으로서의 자부심을 피력하였다. 자녀들이 '일하는 엄마'를 위해 스스로 가사일을 돕고 엄마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엄마에 대한 칭찬과 존중의 표현을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보람과 자부심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자신 스스로에게 성취감도 있고 물론 집안일만 한다고 성취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도 이렇게 일하면 아이들에게 당당할 것 같아요. 엄마도 이렇게 공부하니깐 너희도 해야 하지 않겠니 말이라도 할 수 있고요 (참여자 1)

오히려 싱글맘들이 더 단단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제가 경제활동을 하면서...(자녀들이)제가 손도 대지 못하게 썩 정리를 끝내놔요. 집에 가면 오히려 그 시간에 아이들과...대화하고 그런 수다를 떨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그러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서가 아니라, 적게 보내서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참여자 6)

④ '엄마의 자신감은 자녀의 자신감이며 경제력의 조건'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엄마로서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의 자신감과 행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고 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기쁨과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잖아요? ...엄마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경제적인 것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 2)

엄마가 자신감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도 자신감이 있고 그렇거든요.(참여자 6)

물론 돈도 중요하죠...물론 돈은 내가 벌려고 하면 벌어요, 사실. 가정에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자신감이 없는데...자신감이 내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1)

위에서 살펴본 자활 동력의 역학은 참여자의 자활 과정에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네 차원의 상호작용적 역학이 때로 참여자의 자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여자들의 진술들에서 발견되었다.

⑤ '자녀의 어려움과 위기는 엄마의 실패감과 무기력감 초래'

모든 참여자들은 '자녀의 문제가 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생겨날 때 한부모로서 삶을 가장 버겁게 경험하는 때'라고 보고한다. 예로, 아래 참여자 8의 경우,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아갈 당시, 딸이 엄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후, 두 딸의 손을 잡고 건물 위로 올라가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 했었다(다행히 딸이 간곡히 용서를 빌었을 때 그녀는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 5는 주거빈곤이 열악한 서울에 거주하면서 장애를 가진 아들이 증간소음을 더 많이 내게 되자 이웃에게 자주 신고당하면서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좌절감과 무기력감이 점점 커져갔다고 보고하였다.

지금은 너가 엄마겨 훔치지만 이담에는 남의 것을 훔칠 것 아니냐. 커서 자식이 경찰서와 구치소를 들락달락 하는 것 엄마 도저히 볼 자신 없으니 깔끔하게 지금 죽자.(참여자 8)

내가 지식을 낳은 책임이니까, 도리는 해야 하잖아요...지금은 갈수록 그것도 생각이 없어요...우리 아들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먹고 왔다갔다하고, 소리지르고..., 신고 들어가요.(참여자 5)

⑥ '복지의존의 낙인으로 인한 자존감 약화'

참여자들에게 복지 의존은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속적이고 불편한 현실로 다가오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복지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도움에 대한 미담이 들어있지만, 수급자 혹은 자활대상자로서 그들을 대하는 인력들의 낙인적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예컨대, 참여자 7은 수급자이지만 노후를 고려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 구청에 의뢰하였지만 '영세민이라는 것들' 하면서 무시하는 직원의 태도로 인해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다고 고백하였다. 참여자 3은 자활사업 관리직원이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수급자들의 복지 의존과 근로 동기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적절한 근로연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참여자들의 열등감을 부추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자활일로만 살 순 없잖아요?...우리가 100% 내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구청에 의뢰를 하고 국민연금을 넣게 되었어요...구청에서 보조로 자활근무를 하고 있는 이는 친구가 있는데, 그 계장이라는 분이 그 일 때문에 말이 오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영세민이라는 것들이 돈도 없으면서 무슨 국민연금을 내느냐...' (참여자 7)

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수급권자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그냥 때우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인식이 많이 있어요. (참여자 3)

⑦ '근로연계의 비현실성은 탈수급의 의지와 자존감 약화'

참여자들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노동시장의 현실과 조건이 그들의 노동력 가치와 자녀돌봄(보육/교육) 조건과 맞지 않았기에, '일'이 실질적인 자립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로, 참여자 5는 자활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부수적 임금 노동을 해야만 생계와 자녀교육이 가능한 현실을 고발하였다. 참여자 6은 단순 노동직을 선택했

을 때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원도 못해줄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부모로서 ‘한(限)’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동사무소에 청소하러 다니지만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어디가서 또 끝나고 아르바이트 가야지만 먹고 살아요...우리같은 사람은 자식이 있고 집세내야지 뭐냐지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자활(사업장)이라는 곳이 정말 별로 썩 좋다는 생각은 안들어요.(참여자 5)

(직장생활) 안해 본 엄마들은 자신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 식당 밖에 못하는데 그게 다 밤에 일 하니까 아이를 못 봐주잖아요...아이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거. 가르치고 싶은게 저는 한이예요...저도 한이 맺히는게 아이들과 문화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참여자 6)

또한 참여자들은 자활근로에서 일반 직장으로 전환하여 탈수급하고 싶지만 자녀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탈수급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기 보다는 “주저앉아서 안주”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받고 있는 2인 가족 기본 급여가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초과하면 탈수급이 되는 거예요...차라리 여기 있는게 더 이득인거예요...저도 탈수급하고 싶어요...아이가 있는데... 내가 나가봤자 백만 원선 밖에 못 받아요. 그걸 바에는 탈수급을 못하는 거예요. (참여자 7)

만약 일반직장인으로 간다면...200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아이가 배우고 있는 것보다도 더 못 배워요. 더 못한 생활을 하게 돼요...엄마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거죠...이 나이에 어디 가서 200만원 이상 주는 월급이 없잖아요. (참여자 3)

5.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빈곤 여성 한부모에게 요청되는 자활의 맥락과 현실을 탐색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구성된 ‘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최근 빈곤 정책에서의 ‘자활’의 목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일’을 통해 복지의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에 있다. 이 목표의 가정에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자활당사자들에게 ‘일’의 자극과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탈수급과 자활의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한다. 위 결과는 이러한 전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 결과의 요약과 논의와 관계된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활 용어에 대한 참여자 관점

먼저, 위 연구결과에는 ‘자활’ 용어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가진 이들은 ‘자활’이라는 용어를 자활사업의 대상자(혹은 실태)와 동일시하여 “영세민, 밀

바닥”과 같이 ‘수급자로서의 낙인감’을 ‘자활’의 이미지로 경험하고 있다.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는 자활사업 경험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적 인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위로부터의 일방적 기획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자활사업이 당사자들의 욕구와 만족에 부합하지 않아 자활 의지와 근로 동기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한편 자활 용어의 원 뜻에 근거한 참여자들의 관점을 탐색한 결과, 자활의 의미에는 ‘견인 도움으로 의 의존’, ‘삶의 방향성에 대한 스스로의 사고 과정’, ‘발전적 차원의 물고기 잡는 법 터득’, ‘나를 찾기 위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궁핍과 좌절로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다시 걷게 해주는 도움으로의 의존이 실제적 자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을 통해 어떻게 자활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 고유의 판단과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 차원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더불어 그들은 강제나 의무로서가 아닌 자신의 자아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활의 의미로서 부합하다고 보고한다.

2)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의 맥락과 현실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Germain과 Gitterman(1996)의 생활 모델에 근거하면, 삶의 스트레스원들(life stressors) 중 본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배우자의 상실, 한부모 가구주 역할, 빈곤화’의 현실은 각각 매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양산하는 삶의 사건들(life events)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삶의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그들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무기력, 불안, 우울, 화 등)와 위기(우울증, 자살사고, 알코올중독 등)는 그들의 자활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영향을 완충시키는 자활 동력의 네 차원은 ‘자녀의 존재’, ‘복지 의존’, ‘일 혹은 직업활동’, ‘자존감(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감 세워나가기)’으로 확인되었다. 이 각각의 동력은 참여자들의 자활 잠재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한 중요한 자원임이 확인되었고, 서로 영향을 주는 역학을 통해 보호요인으로서의 통합적 자활 에너지를 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참여자들의 자활 이야기는 ‘엄마는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의존하는 ‘자녀의 존재’에 대한 책임감은 자활의 중요한 자극과 동기가 되어 ‘일’과 ‘복지’로의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경쟁적 노동시장과 선별적 복지 체계에서 경험하는 소외감과 낙인감은 그들 자신의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게 되지만, 그들은 어머니기에 모든 것을 무릎 쓰고 일을 시작하고 또 복지에 의존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게 된다. 그들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복지’는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고 남편 대신의 역할”을 해주는 존재이다. 또한 ‘일’을 통해 자신들의 취약해진 정신적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더불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한다. ‘복지’와 ‘일’ 모두 그들이 자녀를 방임하거나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자극제와 디딤돌이 되어주었고, 그들이 보듬어낸 자녀의 성장과 지지는 그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지켜줌으로써 '일'과 '복지 의존'에 대한 자기긍정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그들은 경제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자존이 진정한 자활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진 엄마들이 자녀와의 상호 지지 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자활 동력의 상호 역학이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위기로 약화된 자활 잠재력을 복원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장애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었다. 예컨대, 장애 자녀를 둔 한 참여자의 진술에서처럼, 자녀 돌봄과 교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지속적인 곤경은 그들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실패감을 부추이게 되어 자활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한편 그들은 자존감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복지 제공자들에 의해 '일과 탈수급을 꺼리는 자격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으로 취급당할 때 느끼는 좌절을 보고하였다.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근로연계복지 차원의 자활사업 조차 참여자들의 '일'에 대한 기대감과 성취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종속감과 열등감을 강화시킨다는 현실도 지적되었다. 국가가 그들에게 조건부 수급과 일을 요청하지만, 한부모의 자녀돌봄 시간 및 비용을 대체해주고 그들의 노동 가치를 복지수급 비용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일을 통한 자활'은 그들의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가중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사회복지적 논의

위 결과와 연관된 주요 논지와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의존과 자활의 관계성과 자활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의 재고가 필요하다. 기존 '위로부터의 관점'은 자활과 복지의존을 배제성으로 접근하여 자활 성과의 주요 지표로 '복지의존의 탈피(탈수급)'를 고려한다. 본 연구참여자에게 의해 재구성된 자활과 복지의존의 관계적 의미는 자활을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아닌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가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준", "남편 대신" 이었다는 그들의 메시지는 복지의존의 가치와 성과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복지 수급과 근로연계를 통해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책임지려고 애쓰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힘들게 마주했던 삶의 위기와 복지의존에 대한 낙인감을 극복하고 자존과 자립을 꿈꾸는 희망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의존에 대한 국가의 우려는 복지수급이 개인들의 자립 및 근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본 연구에서 탐색한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의지와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정은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한 개인이 '복지의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활을 성취하고 있지 않다고(혹은 자활에 실패했다) 단정지을 수 없다. 즉 복지의존과 자활의 성과는 상호 갈등적 차원의 결과로서가 아닌 상호 포괄적 차원의 과정으로 접근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둘째, 자활 개념에 '소득, 근로여부, 복지의존 여부 등'의 경제적 지표 외에 '자존감, 고용 희망, 역할 갈등 등'의 심리적 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자활의 짧지 않은 여정을 지속적으로 버티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경제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정신적 기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혼, 한부모, 수급자, 빈곤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감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과 직업적 도전과 희망을 의연하게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경제력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¹⁰⁾을 깨닫고 있었다.

셋째, 자활사업 수행 전략과 평가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자활'이라는 용어가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립과 자존'이 아닌 '중속과 낙인'의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은 자활 패러다임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는 의사결정자들이 반드시 숙고해야 할 현실이다. 자활당사자들의 참여 동기과 과정에 대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부자 관점의 수행 및 평가 시스템을 자활사업 수행 매뉴얼에 포함시키는 전략은 자활사업에 대한 '일방성, 강제' 이미지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단순노역에 치중되어 있는 자활근로 참여에 대한 수치심과 낙인감을 해소하고 그들의 주요 자활 동력이었던 '일을 통한 자존감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직업적 잠재력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사업단의 실험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 한편 자활사업 평가에서 본 연구참여자들이 유일하게 꼽은 긍정적 요소는 자활근로(노동시간 단축)를 통해 자녀돌봄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시간 유연성이 매우 낮은 근로 현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현실에서 한부모에게 탈수급에 대한 압박 없이 자활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그들의 일과 양육 병행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 여성 한부모 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위에서 확인한 네 차원의 자활 동력의 역학이 위험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보호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들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본 연구를 통해 여성 한부모의 자활 잠재력은 그 어떤 집단 보다 강하며 그들에게 결정적 자활 동력이 되어주는 것은 '자녀양육의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부모를 지원하는 국가의 복지시스템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는 그들의 진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국가와 지역사회는 먼저 배우자 상실이후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위기와 생계와 자녀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그들의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이해하고 가능한 그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¹²⁾ 그들이 겪는 인간적 어려움과 한계는 무

9) 위로부터의 관점의 자활 접근이 보여주는 '결과중심, 배제성'을 극복하고 '과정, 상호작용'의 개념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본문 p.255의 맥락과 연관된다.

10) 본문(p. 256-257)에서 강선경과 김미숙(2013)이 언급한 여성 한부모의 '마음의 부요', '당당한 사회인'의 맥락과 연관된다.

11) 여성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의욕을 조사한 강남식 외(2002) 역시 자활사업의 '비민주성, 취업으로의 연계 미비, 다양성 부족'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12) Cheng(2010) 역시 국가가 한부모 여성의 자녀돌봄을 대체해 줄 보육자원의 확충과 그들이 근로할 수 있는 노동시장 현실의 개혁적 변화를 도모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복지의존을 벗어난 자활을 요청하는 것은 실제 현실을 무시한 위로부터의 억압이라고 보았다. 또한 모자가정 가구주 자립의지를 조사한 박영란과 강철희(1999)와 여성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실태를 조사한 강남식과 백선희(2001)는 여성 수급자들의 자활의지는 주객관적으로 높지만 그들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 등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고, 그들을 위한 직업훈련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긍

시한 채 가장과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기대하며 '조건부수급, 근로, 탈수급'이라는 일련의 원칙과 의무를 강제하게 된다면 그들의 선택은 복지의존 보다 더 위험한 의존(예: 알코올중독, 우울증, 자살)을 선택할지 모른다. 그러나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복지"로의 의존을 그들에게 기꺼이 넉넉히 허용해 준다면, 그들의 '자녀양육의 에너지'와 '자존감'은 빠르게 회복되어 강력한 자활 동력으로 쓰일 것이다. 예컨대,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있는 한부모 여성들의 경우, 탈수급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건강관리와 부모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켜준다면 장기적 차원에서 그들이 자활적 삶에 도달하는 것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또한 '일을 통한 자활'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에 성급한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들이 직업 기술과 취업 준비성을 갖추기 때까지 그들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대체해줄 복지자원을 마련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으로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외로움과 좌절 속에서도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기 위해 '복지의존'과 '일'을 현실적으로 선택하면서 능동적 주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분투와 희망은 '일과 탈수급을 꺼리는 자격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을 가려내려는 '위로부터의 관점'의 모순을 보여준다. 현재 노동시장 현실과 한부모 여성의 근로 조건과의 괴리는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자활성취를 어렵게 하고, 탈수급후 현실이 오히려 빈곤을 악화시켜 자녀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그들의 판단은 무리가 없다. 일을 통한 탈수급이 그들에게 현재 보다 나은 자활과 자존을 담보해줄 수 없다면 그들은 복지의존이 더 나은 길이라고 믿을 것이다. 최근 영국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을 격렬히 비판한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은 젊은 나이에 한부모가 되었지만 복지의존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해지자 소설가로서 꿈을 키워 지금의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었고 영국에게는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의 여성 한부모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 강남식·백선희, 2001, “여성복지적 관점에서 자활지원사업의 분석과 활성화 방안”, 『사회보장연구』, 17(2): 49-78.
- 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24-50.
- 강선경·김미숙, 2013, “복지시설을 퇴소한 저소득 모자가족의 사회적 배제 완화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87-113.
- 권승, 2005,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권 탈피에 관한 연구: 수급권 탈피의 결정요인과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전략” 논리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 179-205.
- 김교성·강철희, 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5-32.
- 김안나, 2006,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 26(1): 37-68.
- 김인숙, 2008,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성매매여성 자활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 95-129.
- 김준현, 2009, “지역자활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서울, 부산,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1): 339-366.
- 노대명, 2006, “자활사업 그 성과와 과제: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좌담회”, 『자활사업종합보고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157-178.
- 박영란·강철희, 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학』, 3: 91-116.
- 박영란·황정임, 2002, 『여성의 빈곤 실태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간병도우미 자활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재규, 2009, “여성가구주의 발생 원인에 따른 빈곤특성 분석”, 『여성연구』, 77(2): 109-141.
- 박정호, 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41(3): 163-184.
- 박희정·오윤섭·이오, 2010, “논리틀을 이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광주지역 자활센터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1): 279-311.
- 백학영·고미선,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83-114.
- 백학영·조성은, 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지위와 노동시장 지위 변동”, 『사회복지연구』, 43(1): 143-178.
- 보건복지부, 2000,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http://www.mw.go.kr>.
- 신명호, 2006, “빈곤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 자활사업의 효과, 제대로 평가하자”, 『도시와 빈곤』, 80: 19-45.
- 엄태영·임진섭,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과에 관한 연구: 대구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대한소화기학회지』, 64(5): 79-105.
- 오혜인, 2013, “근로빈곤 한부모 가구의 수급잔존에 관한 연구: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525-561.
- 이상록·진재문, 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 전북 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 및 한계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 241-272.
- 이상은·전제나, 2012, “자활사업의 사회적 배제 감소 효과”, 『사회복지연구』, 43(3): 151-180.
- 이숙진, 2002,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자활사업”, 『한국여성학』, 18(2): 37-72.
- 이현주, 2013,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3(1): 171-214.
- 이형하·조원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217-244.
- 이희연, 2011, “생애사를 통해 본 공공부조수급 여성가구주의 삶”, 『아시아여성연구』, 50(1): 131-167.
- 임진섭·장용언·공정석, 2010, “자활서비스의 질과 직무만족이 자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3): 271-297.
- 장은진·석재은, 2011, “결혼해체 이후 중장년 여성가구주의 적응 유형에 관한 중년 사례연구: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3): 159-190.
- 정미숙, 2007,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4): 191-216.
- 정혜숙, 2013, “미국 한인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자활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5(4): 245-26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35-25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발간자료.
- 한상진·김용식, 2007,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노동정책연구』, 7(1): 139-171.
- 황덕순, 2005,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주요 논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자활사업과 EITC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지』, 85-110.
- 황정임, 2005,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자활공동체(참여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Ahn, H., 2014, “Economic well being of low 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following welfare reform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4: 14-26.
- Bowie, S. L., and Dopwell, D. M., 2013, “Metastressors as barriers to self-sufficiency among TANF-reliant African American and Latina women”, *Affilia*, 28(2): 177-193.
- Brush, L. D., 2000, “Battering, traumatic stress, and welfare-to-work transition”, *Violence Against Women*, 6(10): 1039-1065.
- Cheng, T., 2010, “Financial self-sufficiency or return to welfare?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among the working poo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9: 162-172.
- Cooke, M., 2009, “A welfare trap? The duration and dynamics of social assistance use among lone mothers”,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46(3): 179-206.
- Cooney, K., 2006, “Mothers first, not work first: Listening to welfare clients in job training”, *Qualitative Social Work*, 5(2): 217-235.
- Daugherty, R. H., and Barber, G. M., 2001, “Self-sufficiency, ecology of work, and welfare reform”, *Social Service Review*, 663-675.
- Gabe, T., 2003, *Trends in Welfare, Work and the Economic Well-being of Female-headed Families with Children*, New York: Novinka Books.
- Garces, J., 2003, “Towards a new welfare state: The social sustainability principle and health care strategies”, *Health Policy*, 65(3): 201-215.

- Germain, C. B., and Gitterman, A., 1996,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Advance in Theory &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wdy, E. A., and Pealmutter, S., 1993, "Economic self-sufficiency: It's not just money", *Affilia*, 8(4): 368-387.
- Grabowski, L. J. S., 2006, "It still don't make you feel like you're doing it": Welfare reform and perceived economic self-efficacy", *Journal of Poverty*, 10(3): 69-91.
- Grube-Farrell, B., 2002, "Women, work,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in the uniformed services", *Affilia*, 17: 332-353.
- Hawkins, R. L., 2005, "From self-sufficiency to personal and family sustainability: A new paradigm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2(4): 77-92.
- Hong, P. Y. P., Sheriff, V. A., and Naeger, S. R., 2009, "A bottom-up definition of self-sufficiency: Voices from low-income", *Qualitative Social Work*, 8(3): 357-376.
- Kneipp, S. M., 2000, "Economic self-sufficiency: An insufficient indicator of how women fare after welfare reform", *Policy Politics Nursing Practice*, 1: 256-266.
- Miles, M. B., and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CA: Sage.
- Rickman, D. K., Bross, N., and Foster, E. M., 2001, "Patterns of recidivism for welfare leavers",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2001(91): 45-58.
- Riger, S., and Staggs, S. L., 2004, "Welfare reform, domestic violence, and employment: What do we know and what do we need to know?", *Violence Against Women*, 10: 961-990.
- Rusyda, H. M., Lukman, Z. M., Subhi, N., Chong, S. T., Latiff, A. A., Hasrul, H., and Amizah, W. M. W., 2011, "Coping with difficulties: Social inequality and stigmatization on single mothers with low income household", *Pertanik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19(S): 157-162.
- Scott, E. K., London, A. S., and Gross, G., 2007, "I try not to depend on anyone but me": Welfare reliant women's perspectives on self sufficiency, work, and marriage", *Sociological Inquiry*, 77(4): 601-625.

Reconstruction of the Experience of Single Mothers in Poverty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Welfare Dependency, and Work-

Chong, Hye-Suk
(University of Seoul)

This qualitative study is designed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experience of single mothers in poverty based on the bottom-up approach. Welfare dependency is identified as vital help to protect their own and children's lives, through their stories telling that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government and community take care of them "in place of their husbands", and "raise them up by hand." What is self-sufficiency to them is more of a process-orientation through welfare dependency than a state out of it, and a way to look through building their self-esteem and working to discover their self-worth except their economic power. Restoring their potential to self-sufficiency through dealing with their psycho-social stresses and expanding services for them related to child-care(education) and occupation ability development for long-term self-sufficiency, rather than hasty focusing on welfare exit, should be built on the foundation of helping them self-sufficient. In order for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o overcome the participant's images of "subordination and stigma" and to convey the original meaning of "welfare to work", the performance and evaluation system of self-sufficiency programs that reflects the insider's perspectives on their participation motive and process, and the self-sufficiency program customized for their needs and interests should be encouraged to develop.

Key words: qualitative study, self-sufficiency, welfare dependency, single mothers, welfare to work, self-sufficiency program

[논문 접수일 : 15. 10. 01, 심사일 : 15. 10. 15, 게재 확정일 : 15. 11. 12]